

중일전쟁(中日戰爭) 이전 시기(1912~1936) 조선의 원산화교(元山華僑)*

이 은 상**

- I. 서론
- II. 원산의 위상
- III. 원산화교의 규모와 직업
- IV. 원산화교의 네트워크
- VI.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기존 화교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20세기 전반 조선 북부화교, 그 중에서 중일전쟁 이전 원산화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의미는 다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지역적으로 원산에 주목함으로써 조선화교사의 연구범위를 확장하였다. 원산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군사기지 역할을 하였고, 20세기 초 경원철도를 시작으로 육상과 해상교통이 발달하면서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와 함경북도의 청진 등에 밀려 공업 발전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원산의 도시로서의 특성은 원산화교의 규모와 직업별 구성에도 반영되었다. 원산화교는 청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 부산대 교수

말(淸末)까지만해도 200명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경원철도의 개통이후 점차 증가하여 1930년에는 1,186명으로 늘어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1931년 배화폭동(排華暴動) 이후 원산화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화교직물도매상이 거의 몰락하고 남은 직물잡화상의 규모 역시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화교농민이 늘어나 1934년 말에는 화교상인과 비슷한 규모가 되었다. 반면 공업도시로서의 위상이 미약하여 화교노동자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두 번째로 『주조선사관당』(駐朝鮮使館檔)에 수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원산화교의 네트워크를 원산부영사관, 원산중화상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지역별로 중화상회의 전신(前身) 중화회관(中華會館)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원산의 경우 중화회관의 장정(章程)을 통해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동사(董事)를 포함한 회원을 분석하였다. 중화회관은 상무총회(商務總會)를 거쳐 1916년 12월 상회법(商會法)에 따라 중화상회로 개조되었는데, 1917년, 1928년 중화상회 직원의 명단을 통해 화교상인의 출신지, 직업 상황을 검토하였다. 이들은 원산화교의 대표자로 부영사관 인사, 부영사관 존폐 문제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 주제어

원산화교, 원산부영사관, 중화회관(中華會館), 중화상회(中華商會), 배화폭동(排華暴動)

I. 서론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의 남북 분단,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국민정부의 타이완 이전, 한국전쟁의 발발 등 일련의 과정은 한국화교와 북한화교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북한화교사 연구는 한국학계에서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그 연유는 무엇보다 자료의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지만, 해방 이후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한국화교사 연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보다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¹⁾

그러나 20세기 전반기 조선화교사에서 북부화교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화교는 1910년 11,818명에서 1920년 23,989명, 1930년에는 67,794명으로 늘어났고, 1942년에는 82,66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미 1922년의 시점부터 경기도를 제외하고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황해도 등 조선북부 5도에 거주하는 화교의 비중이 높았다. 도시로는 경성이 가장 많고 신의주, 인천, 평양, 청진, 원산, 진남포가 뒤를 이었다.²⁾ 이러한 경향은 뒤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져 1930년에는 북부화교가 약 61%, 1935년에는 67%, 1940년에는 82%, 1942년의 경우 83%를 차지하였다.³⁾ 이들은 주로 노동자, 농민이 많았다.⁴⁾

-
- 1)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북한화교사회 연구는 중국학계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楊昭全·孫玉梅,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公司, 1991; 曲曉範·劉樹眞, 「當代朝鮮華僑的歸國定居及其安置史略」, 『華僑華人歷史研究』 2000年 第4期, 中國華僑華人歷史研究所, 2000 등. 최근 중국의 연변(延邊) 혹은 단둥(丹東) 귀국화교 구술(口述),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 북한의 공식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중심으로 북한화교사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옥련, 「연변 지역의 귀국화교사회와 북한화교사회의 상관관계 및 역사성」, 『한국학연구』 30,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3; 쟈르치즈스키 표도르(이휘성), 「북한화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북한대학원대학, 2014.
 - 2)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1922.
 - 3) 앞의 책, 各年.
 - 4) 1922년 말 조선에 들어온 화교노동자는 15,800여 명인데, 평안북도와 경기도가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화교가 상인 중심의 ‘화상형(華商型)’이라면, 조선화교는 상인, 노동자, 농민을 포함하는 ‘화상·화공혼합형(華商·華工混合型)’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선 개항기 및 식민지 초기에는 ‘화상형’, 1920년대부터 상인에 더하여 농민과 노동자 인구가 급증하여 1930년대 이후는 ‘화공형’이 ‘화상형’보다 우위를 점하였다. 일본화교는 조선 화교에 비해 200~300년 빠른 시기에 일본에 정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가 많았던 1930년에도 31,890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일본정부가 화교노동자와 농민의 입국을 제한하였던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반면 조선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느슨하였다.⁵⁾ 게다가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조선 북부에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대량의 화교노동자 수요가 발생하였다. 이런 점에서 조선 북부화교사 연구는 조선화교사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기존 화교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선 북부화교에 주목하여 원산, 청진, 신의주 등 개항 도시의 화교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고는 20세기 전반 중일전쟁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원산화교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우선 개항장 원산의 위상을 검토한 뒤, 원산화교의 규모와 직업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원산의 도시로서의 특징은 원산화교의 규모와 직업별 구성에도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931년 배화폭동 이전과 이후 원산화교 상황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원산화교의 네트워크를 원산부영사관, 화교조직을 통해 살

가장 많고 그 뒤로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도, 평안남도의 순이었다. 이 6도를 합하면 전체의 90%이고, 경기도를 제외한 조선북부 5도는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小田内通敏, 『朝鮮に於ける支那人の經濟的勢力』, 東京: 東洋協會出版部, 1924, 42~43쪽. 화교농민 역시 조선북부에서 두드러져, 1935년의 경우 평안북도가 가장 많았고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경기도, 황해도의 순이었다.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5.

5) 李正熙,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京都: 京都大学学术出版会, 2012, 524~526쪽.

펴볼 것이다. 중화상회는 화교사회를 대표하는 조직이지만, 청말(清末) 한성의 화교상인 조직, 중화민국 시기 인천의 중화상회에 관한 부분적인 연구를 제외하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도 중화상회의 전신(前身)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회관(中華會館)의 장정(章程)이 발견되지 않아 중화회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⁶⁾ 이런 점에서 『주조선사관당』(駐朝鮮使館檔)(臺灣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所藏)에 수록된 원산중화회관 장정, 중화상회 관련 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원산중화회관의 역할과 중화상회 직원의 상황, 중화회관과 중화상회 등 화교조직과 부영사관의 관계를 밝혀보려고 한다.

본고를 작성하기 위해, 『주조선사관당』을 중심으로 『남경국민정부외교부공보』(南京國民政府外交部公報) 등 중국측 자료 뿐 아니라, 조선총독부, 원산상업회의소 등 일본측 자료를 활용하였다.

II. 원산의 위상

한일수호조규에 의거하여 일본은 부산 이외의 항구로 영흥만(永興灣) 내의 한 곳을 요구하였다. 이는 통상의 필요 뿐 아니라 러시아의 남진(南進)을 우려한 군사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한일 양국은 1879년 영흥만 남쪽의 원산진(元山津)을 개항하는 데 합의하고, 부산의 예에 따라 일본거류지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일본정부는 다음 해인 1880년 초 포고령을 발표하여 5월 1일부로 원산이 개항됨을 알리고 도항자를 모집하였다. 이에 5월 말 영사관원, 영사경찰, 의사, 도급업자, 은행원, 상인 등 200여

6) 김희신, 「清末(1882~1894년) 한성 華商組織과 그 위상」, 『중국근현대사연구』 46, 중국근현대사학회, 2010; 이정희·송승석,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 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학고방, 2015, 78~102쪽.

명이 원산에 상륙하였다.⁷⁾

부산은 개항 이전부터 일본과의 외교, 통상관계를 위해 왜관(倭館)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일본거류지도 왜관의 도시적 형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일본의 입장에서 부산은 최초로 ‘선정된’ 개항장일 뿐 최초로 ‘형성된’ 개항장은 아니었다. 반면 원산은 일본 민족이 “천에만리(天涯萬里)의 이역 땅에서” “초땅(草莽)의 지역을 개척하여 순연한 일본 시가(市街)를 건설한 곳이고, 그 역사는 일본 민족이 해외 개척의 선봉에서 활약한 분투사이고 발전사였다.”⁸⁾ 말하자면 일본인에게 최초의 해외 개척지로 일본인거류지가 만들어진 곳은 부산이 아니라 원산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산은 무역항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수도 한성과의 거리가 멀고, 토지는 습하고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벽지(僻地)였으며, 겨울에는 선박의 출입이 두절되었다. 일본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산의 거주, 통상 조건이 불편하여 일본인의 일부는 본국 혹은 부산으로 돌아갔고 일부는 인천이 개항하자 인천으로 갔다.

일본인에게 원산은 ‘통상항’으로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으나, 군사적 요충지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원산에 일본인거류지가 설정되면서 러시아의 진출은 사실상 봉쇄되었다. 청일전쟁 시 원산은 일본군의 상륙 거점이었고, 러일전쟁 시에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군사기지에 대응하여 일본 해군기지가 자리하였다.⁹⁾

특히 청일전쟁은 일본상인이 청국 화교상인을 제치고 원산의 상권을 장악해가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청일전쟁에 따른 일본군의 상륙, 진군은 잊혀져가고 있던 원산을 기억으로부터 되살려 갑자기 거류민이 격증하였다. 일찍이 인구비례로 보아 청국상인은 무역에서 일본상인을 능가하여, 기왕 10년간 조선에서 청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권(商權)에서

7)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 변화과정 연구』, 일지사, 1982, 119~120쪽.

8) 高尾新右衛門 編, 「序」, 『元山發展史』, 大阪: 啓文社, 1916; 高尾白浦, 『(大陸發展策より見たる) 元山港』, 元山: 東書店, 1922, 93쪽.

9)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 변화과정 연구』, 120~124쪽.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 전쟁 이후 지위가 역전되었다.”¹⁰⁾ 러일전쟁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1880년 처음으로 원산에 들어온 일본인은 235명이었는데, 청일전쟁이 발발하는 1894년 903명, 전쟁이 종결된 1895년에는 1,362명으로 늘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1904년까지 1,895명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1905년에는 3,150명, 1906년에는 5,120명으로 증가하였고, 1910년에는 4,696명을 기록하였다.¹¹⁾ 원산의 일본거류민 증가가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천의 거류민과 비교하면 그 규모는 적었다.¹²⁾

또한 “동해는 일본 본토와 대륙을 포용하는 호수와 같고 양어지(養魚池)와 같은 천혜(天惠)의 좋은 위치”에 자리하였다. 이 동해를 활용하기 위한 연해의 가장 우수한 항만은 원산항이었다.¹³⁾ 따라서 일본은 원산을 만주로 향하는 군사 전진기지로 삼으려 했는데, 이를 위해 근대적 교통 시설이 긴요하였다.

경성과 원산 간 철도 부설 움직임이 일어났던 시점은 러일전쟁 기간이었다. 일본은 전쟁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철도 일부를 기공하였으나 전쟁이 종결되자 그만두었다. 그러나 원산상업회의소에서 경원철도급설안(京元鐵道急設案), 이후 통감부가 경원철도부설안(京元鐵道敷設案)을 제출하면서 급진전되어, 1914년 경원철도가 완공되었다. 조선의 개항장 중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개항장에 비해 원산의 발달이 지체된 것은 교통의 불편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원철도의 개통으로 오랫동안 중앙과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원산이 철도망을

10) 高尾新右衛門 編, 『元山發展史』, 215~216쪽.

11) 高尾白浦, 『(大陸發展策より見たる) 元山港』, 64~67쪽.

12) 인천의 일본인은 1883년에 348명으로 출발하였으나 1894년에 3,201명, 1895년에 4,148명으로 늘어났고, 1904년에 9,403명, 1905년에는 12,711명, 1910년에는 13,315명으로 증가하였다. 仁川府, 『仁川府史』, 仁川府, 1933, 6~10쪽. 1910년을 기준으로 일본인 거류민은 인천이 원산의 2.8배 정도였다.

13) 앞의 책, 8~9쪽.

통해 경성과 연결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경원선이 완성되자마자 원산을 기점으로 함경남북도를 종관하여 함흥, 청진 등을 지나 국경의 회녕(會寧)에 이르는 함경선 공사가 개시되었다.

원산에서 국경의 회녕까지 철도가 만들어지면 종래 낙후되었던 함경도의 산업이 발전할 뿐 아니라 철도로 만주와 연결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함경선의 회녕에서 만주의 길림(吉林)으로 통하는 길회선(吉會線)이 완성되면 길림에서 장춘(長春)에 이르는 길장선(吉長線)과 연결되어, 원산이 만주와 일본 및 조선을 연결하는 요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¹⁴⁾ 이런 점에서 함경선 개설은 거시적으로 철도로 조선과 만주를 연결하려는 계획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구상은 대략 1933년 실행되었다.¹⁵⁾

또 다른 야심찬 계획은 원산과 평양 간 횡단철도 평원선(平元線)을 부설한다는 것이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평양에서 경의선(京義線)과 평남선(平南線)으로 연결되어, 경의선을 통해 남만주에 직통하고, 평남선으로 진남포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에 원산, 평양, 진남포 일본거류민단은 평양, 진남포, 원산을 이을 뿐 아니라 만주 및 중국과 동해까지를 연결할 수 있는 평원선 부설을 일찍부터 요청하였다. 이 노선은 1926년 공사에 착수하여 1941년 완성되었는데, 평양 근처 경의선 서포(西浦)를 기점으로 평안남도과 함경남도를 가로질러 함경선 원산 부근의 고원(高原)에 이르는 횡단철도였다.¹⁶⁾

해상교통은 개항 당초부터 기선, 범선이 운항하였으나 부정기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원산과 일본의 교통은 부산을 경유하였기에, 원산상업회

14) 앞의 책, 22~25쪽.

15) 함경선은 1928년 완공되었다. 길회선은 기존의 길장선을 연장하여 1928년 길림에서 돈화(敦化)까지 길돈선(吉敦線), 1933년 돈화와 도문(圖們)을 연결하는 돈도선(敦圖線)이 개통되면서 사실상 완성되었다. 김지환, 「간도협약과 일본의 吉會鐵道 부설」, 『중국사연구』 34, 중국사학회, 2005, 262~267쪽.

16) 元山商工會議所, 『元山商工會議所六十年史』, 元山: 元山商工會議所, 1942, 52~54쪽; 78~79쪽; 中村進吾, 『朝鮮鐵道四十年略史』上, 京城: 共盛堂印刷所, 1940, 250쪽.

의소를 중심으로 원산과 일본을 직접 연결하는 ‘동해 횡단항로’ 개설을 요청하였다. 결국 1918년 4월 동해 횡단항로가 개설되어 청진에서, 성진, 원산, 츠루가(敦賀)를 잇는 항로가 만들어졌다. 이 항로의 개시는 일본의 중앙시장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와 만주의 봉천(奉天)을 잇는 최단 거리의 교통로였다. 이어 원산, 성진, 청진, 블라디보스토크, 나나오(七尾), 후시키(伏木)를 연결하는 항로도 개설되어 일본과 조선북부 간의 교통이 편리해졌다. 기존의 항만도 개수, 확대를 거쳐 대형 선박이 출입 가능한 무역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¹⁷⁾

원산항의 무역 관계를 살펴보면 수출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그 다음이 중국이었다. 지리적 관계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무역 역시 중요하였다. 따라서 무역 관계에서 관건은 일본 경제계, 중국, 블라디보스토크의 상황이었다. 원산의 대외무역을 주된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원산의 대중(對中) 무역, 대일 무역은 수출입 모두 1914년에 비해 1920년에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 초과를 면할 수는 없었다. 반면 대(對) 블라디보스토크 무역은 외국무역 중 유일하게 수출 초과를 보였다. 1920년대 조선의 대 블라디보스토크 무역의 유일한 병탄항이 원산항임을 알 수 있다.¹⁸⁾

17) 元山府, 『日本海の商港 元山』, 元山: 元山府, 1926, 17~20쪽; 85~86쪽; 高尾白浦, 『(大陸發展策より見たる) 元山港』, 19~20쪽.

18) 원산 개항부터 1920년까지 무역 통계를 보면 일본, 중국, 블라디보스토크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무역액 증가의 첫 번째 계기는 청일전쟁, 두 번째 계기는 1901년 블라디보스토크의 관세 인상, 세 번째 계기는 러일전쟁, 네 번째 계기는 경원철도 부설, 마지막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高尾白浦, 『(大陸發展策より見たる) 元山港』, 96~108쪽; 116~120쪽.

〈표 1〉 원산의 대외무역액 비교표(단위: 圓)¹⁹⁾

國別	1914년 무역액		1920년 무역액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일본	1,026,685	2,705,503	3,785,669	6,808,803
중국	38,148	317,297	375,319	3,007,486
블라디보스토크	71,235	5,373	264,633	54,735
기타 외국	5,757	1,173,660	1,371	922,821
계	1,136,068	3,028,173	4,425,621	9,871,024

그러나 원산은 무역항, 상업항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업은 부진하였다. 게다가 만주사변 이후 군사적, 상업적으로 청진이 주목을 받으면서 원산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본의 중국 침략 이후 북선(北鮮)루트론이 제기되고 중일전쟁 이후 대륙병참기지론이 거론되면서 청진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대륙 침략으로 자원, 전력, 연료, 용수 등이 갖추어지고 해륙(海陸) 교통이 정비되면서, 청진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다.²⁰⁾ 반면, 1942년의 시점에서 원산상공회의소는 여전히 공업도시 원산의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²¹⁾ 이는 공업도시로서 원산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원산화교의 규모와 직업

1935년 3월 원산부영사관 보고에 의하면 원산 개항 이후 화교가 도래한 시점은 다음과 같다.

19) 앞의 책, 118~119쪽.

20) 송규진,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사학연구』 110, 한국사학회, 2013, 363~366쪽.

21) 元山商工會議所, 『元山商工會議所六十年史』, 52~54쪽.

1883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원산으로 와서 일본거류지 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절강(浙江) 출신 원창신(元昌愼) 주인 응국치(應國治)가 원산화교의 효시이다. 1885년 5~6월간 다시 광둥(廣東) 출신 동풍태(同豐泰) 주인 나요침(羅耀鍼)이 인천에서 원산으로 와서 분점을 개설하였고, 이어 산둥(山東) 출신으로 영증리(永增利), 동흥순(東興順), 긍승공(恆昇公), 덕흥영(德興永) 등이 상점을 개설하면서 도래하는 자가 점차 많아졌다.²²⁾

위의 글에 의하면 원산화교의 효시는 절강 출신 원창신 주인 응국치이고 그가 원산에 들어온 시점은 1883년이다. 그러나 실제로 응국치는 1887년에 원산에 처음 왔기 때문에(후술), 원산에 최초로 화교가 들어온 시점은 1885년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응국치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도래했다는 것으로 보아 원산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천화교가 원산에 와서 분점을 세우기도 했지만, 산둥에서 직접 원산으로 이주하여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는 화교가 모두 일본인과 잡거(雜居)하였으나 1888년 따로 원산의 서북쪽 구해관(舊海關) 부근(支那町, 이후 春日町으로 개조)에 청국조계(淸國租界)를 획정하자, 1891년에 이르러 점차 조계로 들어가 영업하였다. 이들은 평소에 모두 근면 성실하고 기회에 민첩하여 주단포목업은 거의 전부 화교가 장악하였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화교는 청일전쟁 이전까지 100명을 넘지 못했다. 190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관세를 인상하면서 원산의 상무가 활기를 띠고 화교수도 늘어났지만, 1906년까지도 원산화교는 230명으로 한성, 인천, 진남포, 군산, 평양의 화교보다 적었다.²⁴⁾ 이후 중화민국 초경원철도의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화교는 점차 증가하였다.

22) 駐元山副領事館, 「元山僑務之概要」, 『南京國民政府外交部公報』(中國第二歷史檔案館編,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0年影印本) 第8卷 第3號, 1935.3.

23) 앞의 자료.

24) 楊昭全·孫玉梅, 『朝鮮華僑史』, 130쪽.

〈표 2〉 원산학교의 남녀수와 비율(1912~1936)²⁵⁾

연도	남성	여성	인구수	남녀 비율
1912	314	14	328	23.4:1
1913	456	26	482	18.5:1
1914	298	22	320	14.5:1
1915	537	22	559	25.4:1
1916	288	40	328	8.2:1
1917	379	25	404	16.2:1
1918	394	29	423	14.6:1
1919	382	38	420	11.1:1
1920	468	112	580	5.2:1
1921	466	109	575	5.3:1
1922	448	119	567	4.8:1
1923	548	136	684	5.0:1
1924	630	127	757	6.0:1
1925	640	128	768	6.0:1
1926	646	128	774	6.0:1
1927	658	128	786	6.1:1
1928	663	128	791	6.2:1
1929	674	135	809	6.0:1
1930	940	246	1,186	4.8:1
1931	213	31	244	7.9:1
1932	435	143	578	4.0:1
1933	570	191	761	4.0:1
1934	637	203	840	4.1:1
1935	689	205	894	4.4:1
1936	837	256	1,093	4.3:1

〈표 2〉에 의하면 원산학교는 1913~1916년에는 증감의 폭이 컸지만, 1917년 404명을 시작으로 서서히 증가하여 1930년에는 1,186명으로 전

25)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各年. 1912년 남녀학교수는 駐元山副領事館, 「元山僑務之概要」에 근거하였다.

성기를 맞이하였다. 1931년 배화폭동의 영향으로 거의 3/4이 줄어든 244명이 잔류하였지만 점차 회복세를 보여 1936년에는 1,093명에 달했다.

1910년대 화교사회는 남성 중심의 단신출가형 사회로, 화교의 남녀비율에서 남성의 수가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1920년대 들어서면서 화교의 경제기반이 안정됨에 따라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남녀비율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조선화교의 정착 시기는 대략 1920년대 후반으로, 화교의 정주화(定住化)는 조선남부보다 북부가 더 빨랐다.²⁶⁾ <표 2>에 의하면 원산화교는 1920년 남녀비율이 5.2:1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일찍 화교의 정착이 이루어졌다. 화교의 정주화는 자녀교육을 위한 화교 학교의 설립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원산에 처음 화교학교가 만들어진 시점은 1923년으로,²⁷⁾ 이는 원산화교의 정주가 192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후 배화폭동으로 1931년 남녀비율이 7.9:1인 것을 제외하고 남녀수 격차는 해마다 줄어들었고 1936년에는 4.3:1이었다.

다음으로 원산화교의 직업별 현황을 1923년 말 조선총독부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자. <표 3>에 의하면 1923년 말 원산화교는 상업 및 교통업이 35.9%로 가장 많고, 농업이 24.9%로 2위를 차지하였다. 공업은 6.9%로 고력(苦力) 등 기타 유업자(其他有業者, 14%)를 포함하면 20.9%였다. 그러나 무직도 17.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6) 왕언메이 저, 송승석 역, 『동아시아현대사 속의 한국화교 - 냉전체제와 조국 의식』, 학교방, 88쪽; 95~97쪽.

27) 楊昭全·孫玉梅, 『朝鮮華僑史』, 289쪽.

〈표 3〉 원산화교의 직업별 현황(1923년 말)²⁸⁾

분류	직업	호수(호)	인구(명)	계(비율)
공무 및 자유업	관리	2	4	4(0.6%)
상업 및 교통업	吳服商(직물상)	18	58	243(35.9%)
	잡화상	12	33	
	식료품상	6	13	
	숙박업	2	27	
	요리점	2	25	
	음식점	15	79	
	정육점	2	3	
이발업	2	5		
농림목축업	농업	42	169	169(24.9%)
공업	大工(목수)	5	18	47(6.9%)
	노동자	13	29	
기타 유업자(其他 有業者)	기타 유업자	26	95	95(14.0%)
무직		2	120	120(17.7%)
총계		147	558	-

〈표 3〉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직물상 18호 중 직물 수입상(도매상)은 삼합영(三合永, 대표 譚韞亭), 덕태원(德泰源, 대표 孔慶璋), 덕흥영(德興永, 대표 孫豫川), 성기호(成記號, 대표 龍甲殿) 등 4호였다. 천화덕(天和德, 대표 龍振聲)은 직물수입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역상, 해삼·약재·모피 수출상으로 직물과는 관련이 없다.²⁹⁾ 이들 직물수입상은 원산의 위치와 향로의 문제로 직접 중국과의

28)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朝鮮總督府, 1924, 188~189쪽. 원자료에는 기타 유업자가 25명으로 되어 있으나 호수가 26호인 것과 맞지 않는다. 전체 인구가 678명이므로 기타 유업자를 95명으로 정정하였다. 그런데 149호 678명은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23年)의 숫자(166호 684명)와 약간 차이가 있다.

29) 1923년 말 조선총독부 조사에서는 천화덕을 원산의 대표적인 직물수입상으로 구분했지만 실제로 천화덕은 1906년 당시 피화(皮貨) 취급상, 1919년, 1921년에는 무역상, 1925년부터 해삼·약재·모피 취급상이었다. 『駐朝鮮使館檔』, 臺灣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所藏, 02-35-056-01, 「各口商務情形—各口商務情

거래는 적어, 소포 우편물로 견직물을 수입하는 것 말고, 나머지는 인천 지점을 경유하여 수입하였다. 1920~1922년 수출입 상품을 살펴보면 수입품은 중국산 마포(麻布), 대두유(大豆油), 비단, 쇠금건(晒金巾), 기타 소포 우편물이고, 수출품은 해삼, 증삼, 명태어란 등이다. 이들 상점은 중국의 상해(上海), 지부(芝罘), 봉천(奉天), 간도(間島) 그리고 조선의 인천 등지에 지점을 갖고 있으며, 자본도 풍부하여 원산 화교상인의 대표자였다. 그 조직은 모두 2~3명 혹은 4~5명의 합자(合資)이고 현재의 경영자는 자본주(주주)이면서 지배인이었다. 상점의 과세표준액을 살펴보면 삼함영 25만원, 덕태원 24만원, 덕흥영 23만원, 천화덕 10만 3천원, 성기호 9만원의 순이었다.

앞의 5호를 제외하고 다른 상인은 소매상이었다. 소매상은 31호이고 취급 상품은 주로 중국인의 일용잡화, 면포, 과자 및 기타 연초, 맥주 등 일본 잡화였다. <표 3>에서 직물상이 18호이므로, 그 중 5호는 직물류수입상(실제로 천화덕은 해삼·약재·모피 수출상), 나머지 13호는 직물소매상 혹은 직물 겸 잡화소매상이며, 12호는 잡화상, 6호는 식료품상으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산 제품은 경인(京仁) 지방과 현지 도매상에게서 입수하고, 일본 잡화는 일본 또는 현지의 일본인 상점에서 가져왔다. 주요 상점의 과세표준액은 광영태(廣榮泰) 4만원, 영성태(永盛泰) 3만 3,400원, 영풍태(永豐泰) 3만 1,100원, 영화태(永和泰) 2만 5천원, 천화룡(天和隆) 2만 526원, 원기호(源記號) 1만 8,200원, 의생덕(義生德) 1만 7,800원, 서성영(瑞盛永) 1만 3천원, 덕흥성(德興盛) 1만원, 광발안(廣發安) 9천원의 순이었다.³⁰⁾

원산부영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1929년도 관내(함경남북도, 강원도) 화교상점수는 432호로, 그 중 직물 겸 잡화업이 가장 많은 166호, 그 다

形)(一)(馬廷亮, 1906年), 48~49쪽; 『商工資産信用錄』 1932年; 1936年(李正熙,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附表 540~572쪽). 따라서 천화덕은 직물수입상이 아니라 무역상, 해삼·약재·모피 수출상으로 분류되어야 맞다.

30)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191~194쪽.

음으로 직물업이 93호였다. 자본액의 규모면에서 직물업이 전체의 43%, 직물 겸 잡화업이 35.6%를 차지하여 이 두가지를 합하면 78.6%였다. 영업이익에서도 직물업이 전체의 38.5%, 직물 겸 잡화업이 31.8%로 이 둘을 합하면 70%가 넘었다.³¹⁾ 화교상인 중 직물상, 직물 겸 잡화상이 수적으로도, 자본액 규모로도, 매상이익 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의 두가지 대상업(大商業)의 하나는 곡물상으로 화교상점이 거의 없지만, 다른 하나인 직물상 혹은 직물 겸 잡화상은 화교상점이 많아, 1930년의 경우 조선 전체 상점수의 약 20%, 매상총액의 약 20%를 점하여 일본인과 조선인 직물상을 압박하는 세력을 형성하였다. 화교직물상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기존의 광동방(廣東幫), 남방(南幫) 세력은 약화되고 산동방(山東幫)이 강고한 지위를 구축하였다. 이들 산동방 직물상은 산동성 농촌 지역의 유희자본(遊休資本)에 의해 지부(芝罘)에 설립되었던 잡화상, 직물상, 해산물상(海産物商), 전장(錢莊) 등의 상업자본에 의해 개설되었다. 화교직물상은 경성과 인천의 직물수입상을 정점으로 각 부(各府)의 도매상을 통해 농촌지역의 소매상 및 행상에 이르기까지 유통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³²⁾ 원산에서 가장 과세표준액이 높은 삼합영은 인천에도 설립되었는데,³³⁾ 삼합영의 직물 수입, 거래도 이러한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업종은 주물업이었다. 1923년 원산의 쌍리공주조부공장(雙利公鑄造釜工場)은 신의주화교 쌍리공이 4천원을 출자하여 숙지한(肅志漢)에게 경영을 위임한 것이다. 직공은 25명으로 그 중 유년공 20명, 성년공 5명을 사용하여 전동기 1대를 두고 숯, 농기구를 제조하였다. 원료철은 평양의 장부상점(長富商店)에서, 석탄은 원산의 소천상점(小泉

31) 「元山華僑開設商店表」(1929年分)에 의거하여 계산함. 駐元山副領事館, 「元山華僑開設商店表」(1929年分), 『南京國民政府外交部公報』第3卷 第7號, 1930.11.

32) 李正熙,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31~34쪽; 53~55쪽.

33)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104쪽.

商店)에서 구매하였고, 제품은 원산부와 강원도의 조선인 소매상에게 판매하였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여 인기가 많았다. <표 3>의 공업노동자 29명에는 주물공장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다.

<표 3>에서 농업종사자는 42호, 인구는 169명에 이른다. 화교농민은 산동 출신으로 미작(米作)은 한 명도 없고 모두 야채밭을 경작하여 직접 심은 야채를 시내에서 팔았다. 1923년에는 인천의 경우처럼 화교농민의 야채시장이 없어, 공설시장 내에 화교 야채상점 1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행상이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원산에서도 필요한 야채의 약 80%는 화교농민이 공급하였다.³⁴⁾

지금까지 1923년 말 조선총독부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원산화교의 직업을 살펴보았지만, 1931년 배화폭동 이후 원산화교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배화폭동 이후 노동자는 거의 귀국하고 농민과 상인은 본업을 정지하였다.³⁵⁾ 화교는 1930년 1,186명에서 1931년 말 244명으로 거의 3/4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여 1932년 578명, 1933년 761명, 1934년 840명을 기록하였다(<표 2>). 배화폭동 이전 1929년 말, 배화폭동 이후 1934년 말 원산부영사관의 보고에 의거하여 직업 현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1929년 말 원산화교의 직업은 상업(교통업)이 47.3%로 가장 많았고 농업이 28.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어 공업종사자가 10.1%, 기타 유업자가 7.1%였다. 반면 1934년 말 원산화교의 직업은 상업(교통업)이 40.9%, 농업이 40%로 비슷한 규모이고, 공업종사자 12.9%, 기타 유업자는 3.8%에 불과하였다.

34) 앞의 책, 195~196쪽.

35) 駐元山副領事館, 「本館區域內僑民之分布狀況與職業」, 『南京國民政府外交部公報』, 第7卷 第8號, 1934.8.

〈표 4〉 원산화교의 직업별 현황(1929년 말, 1934년 말)³⁶⁾

시기 분류	1929년 말			1934년 말		
	호수(호)	인구(명)	비율(%)	호수(호)	인구(명)	비율(%)
공무 및 자유업	26	55	6.8	5	20	22.4
상업 및 교통업	107	383	47.3	45	344	40.9
농림목축업	37	229	28.3	91	336	40.0
공업	6	82	10.1	24	108	12.9
기타 유업자	18	57	7.1	11	32	3.8
무업(無業) 및 불명자(不明者)	2	3	0.4			
총계	196	809	100	2,099	808	100

〈표 4〉에서는 상업종사자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1932년 7월 원산부영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배화폭동 이후 화교상업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관내(함경남도, 강원도) 화교상업은 6종인데 이 중 첫째, 수출입 화물을 모두 판매하는 상인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원래 자본이 풍부한 4호 중 배화폭동 이후 성기호, 덕흥영이 업종을 정리하고 덕태원, 삼합영 2호 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배화폭동 이전에는 수입품의 대종은 중국산 주단, 하포(夏布)와 서양 표포(漂布)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중국산 견직물에 중세(重稅)를 부과하여 수입이 어려워지자, 하포 외에 오사카에서 만들어진 견직물, 면직물, 기타 제품을 취급하여 약간의 이익을 취하고, 조선 토산물을 중국에 수출하여 역시 작은 이익을 도모할 뿐이었다.

두 번째로 배화폭동 이전에는 유일하게 천화덕이 조선의 인삼, 녹용, 호피, 해삼, 당삼 등 토산물을 중국에 수출하였다. 배화폭동 이후 겸태흥(謙泰興)과 동증성(同增成) 2호가 더 개설되었지만 금값이 급증하고 또한 시국이 엄중하여 그 영향을 받았다. 수입화물 판매상으로 1~2호가 있지

36) 『駐朝鮮使館檔』 03-47-210-07, 「使館旬報及其他商務報告」(二)(1931年), 166~168 쪽; 駐元山副領事館, 「元山僑務之概要」, 『南京國民政府外交部公報』 第8卷 第3號, 1935.3.

만 만주사변 이후 소미(小米) 수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세 번째로 현지의 다른 점포에서 포필(布疋), 잡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세상인이 화교상인의 대종을 이루었다. 그 외 음식점 종사자, 야채과일상, 이발소와 양복수선점도 적지 않았다.³⁷⁾

그런데 1932년 7월 보고에서는 원산화교 직물상 4호 중 덕태원, 삼합영 2호가 남았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덕태원 만이 유일하였다. 1932년 12월 말 원산부영사관 조사에 의하면, “원산에 원래 4호의 자본이 풍부한 직물도매상이 있었지만 배화폭동 이후 1호가 남았다.”³⁸⁾ 또한 “조선의 토산물 수출상은 3호로 자본은 각각 몇 만 원이었고, 기타 수 천 원의 소자본을 가진 직물잡화상이 많았다.”³⁹⁾ 대규모 화교직물상이 몰락했을 뿐 아니라 남은 직물잡화상의 규모도 크게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교농민 역시 배화폭동으로 타격을 입었다. 1930년 함경남도 화교농가수는 354호였지만 1931년에는 306호, 1932년에는 288호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점차 회복세를 보여 1933년 324호, 1934년 333호, 1935년에는 352호를 기록하였다.⁴⁰⁾

〈표 4〉에 의하면 1934년 말 원산의 화교농민은 91호 336명으로 모두 야채재배업에 종사하였다. 자본은 최대 1,200원에서 최소 80원이고 야채밭은 큰 것이 8천 평, 적은 것이 1,100평 정도로 원산부의 야채는 모두 화교농민이 공급하였다. 1923년 말에는 화교농민 조직이 없었으나 1930년에 원산중화야채판매조합이 만들어졌다. 또한 1933년 부영사관의 협조로 ‘경정공설시장(京町公設市場)’에 수백 평을 나누어 화교농민이 야채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무를 주관하는 야채판매사(野菜販賣社)가 만들어졌다. 회원은 86호로 거의 대부분 화교농민이 가입하였다.⁴¹⁾

37) 『駐朝鮮使館檔』 03-47-222-01, 「元山清津兩館工作報告」(1932年), 14~16쪽.

38) 駐元山副領事館, 「本館區域內僑民之分布狀況與職業」; 「商工資産信用錄」, 1932年; 1936年(李正熙,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附表, 563~569쪽).

39) 駐元山副領事館, 「本館區域內僑民之分布狀況與職業」.

40)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各年.

공업종사자는 24호 108명으로 주물공장 노동자를 제외하고, 목공, 석공, 기와공(瓦工), 소공(小工, 잡부) 등으로 구분되었다. 주물업은 조선 화교제조업 중 가장 대표적인 업종으로, 1910년대 신의주에 처음으로 주물공장이 설립된 이래 1920년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조선 내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배화폭동 이후 평양 등지의 일부 주물공장은 폐쇄되거나 혹은 큰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송씨(宋氏)와 한씨(韓氏) 계열공장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은 주물업으로 유명한 하북(河北) 교하현(交河縣) 출신으로 혈연관계의 형제 혹은 친척 등을 지배인으로 파견하여 조선 내 주물공장을 관리하였고 노동자도 거의 고향 출신을 고용하였다.⁴²⁾

1935년 원산부영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함경남도에서 화교주물공장은 2호로, 함흥의 복성동(福盛東)은 자본 3만원, 노동자는 50여 명이었고, 원산의 동흥공(同興公)은 자본 2만여 원이며 노동자는 40여 명이었다. 동흥공은 연간 수익이 약 5~6천원으로 1934년에는 1만원으로 증가하였다.⁴³⁾ 따라서 1923년 말 조사(〈표 3〉)에서 언급된 쌍리공은 배화폭동을 계기로 영업이 정지되었지만, 한씨 계열공장 동흥공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4년 말 공업종사자와 기타 유업자의 비율은 합해서 16.7%로 1929년 말 17.2%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기타 유업자는 3.8%로 줄어들었다. 1934년에 기타 유업자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1934년 10월 조선총독부가 실행한 화교노동자 입국 제한 정책 때문이다. 원산부영사관의 보고에서도, 1934년 10월 화교노동자 입국 제한법이 기술이 없는 고력(苦力)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우려하였다.⁴⁴⁾

41) 駐元山副領事館, 「元山僑務之概要」; 駐元山副領事館, 「朝鮮元山華僑概況」(1) 『汪偽國民政府外交部公報』第14期, 1940.10(『南京國民政府外交部公報』부록).

42) 李正熙,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246~252쪽; 260~261쪽.

43) 駐元山副領事館, 「元山産業」, 『南京國民政府外交部公報』第8卷 第11號, 1935.11.

44) 駐元山副領事館, 「本館區域內僑民之分布狀況與職業」; 駐元山副領事館, 「最近10年

지금까지 배화폭동 이전과 이후 원산화교의 규모, 직업을 검토한 결과 다음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934년 말에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화교상인이 거의 몰락하고 농업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농업종사자가 늘어난 주요한 원인은 야채조합, 야채조합사가 조직되는 등 화교농민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지만, 화교농민의 증가가 원산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화교농민은 화교상인, 화교노동자와 더불어 조선화교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선의 화교농가는 1920년대부터 해마다 증가하여 1930년에는 3,331호가 되었다. 1931년에는 배화폭동의 여파로 축소되었지만 1933년부터 서서히 늘어나 1936년에는 2,858호를 기록하였다. 특히 화교농민은 조선북부에서 두드러졌다. 예컨대 1935년의 경우 평안북도가 가장 많고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경기도, 황해도의 순이었다.⁴⁵⁾ 조선북부 화교농민의 증가는 1930년대부터 조선북부에서 추진하는 공업화 정책, 각종 토목공사 등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야채 수요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원산화교의 직업별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1929년 말까지 상업인구가 가장 많았으나, 1934년 말에는 상업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농업인구가 늘어나 상업종사자와 농업종사자의 수가 비슷해졌다.

다음으로, 공업종사자와 기타 유업자의 비율은 여전히 크지 않다는 점이다. 1934년 화교노동자 입국 제한법이 화교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지만, 신의주의 상황은 달랐다. 1934년 말 신의주영사관 관내(평안북도) 교민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업종사자(기타 유업자 포함)가 38%, 상업종사자 30%, 농업 24%, 학계 4%, 나머지는 기타였다.⁴⁶⁾

元山市內華僑之動態, 『南京國民政府外交部公報』第7卷 第11號, 1934.11.

45) 경기도의 경우 1930년 화교농가는 472호이지만 배화폭동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1935년 267호, 1942년 171호로 축소되었다. 반면 북부5도는 1935년에는 2,054호로 회복되어 1930년 2,249호를 거의 따라잡았다.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各年.

원산화교의 직업별 현황은 공업도시 신의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원산화교의 네트워크

1. 원산부영사관과 원산화교

중화민국에 들어와서도 청말과 마찬가지로 원산에 부영사관이 설치되었다. 중화민국 초대 원산부영사는 마영발(馬永發)이다. 그는 청말 주한 총영사 마정량(馬廷亮)을 따라 내한하여 인천영사관 수원(隨員), 대리 영사를 거쳐 원산부영사로 임명되었다. 『駐朝鮮使館檔』을 살펴보면 1913년 2월 원산중화회관에서 경성총영사 부사영(富士英)에게 마영발 유임을 호소하는 문서가 남아있다. 그에 따르면, 원산중화회관은 영사 마영발이 도입한 후 그의 공적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내정(內政)을 잘 처리하였다. 마영발이 도입한 후 아편, 도박 등을 행하는 무뢰유민(無賴游民)을 체포하여 교민을 편안하게 하였다. 둘째, 외교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교민이 일본인, 조선인과 교류하면서 빈번한 마찰과 갈등이 일어났는데 마영발이 평소에 일본, 조선관리와 왕래가 밀접하여 교섭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셋째, 관리와 상인의 감정을 연결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마영발은 평소에 상업을 제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관상담화회(官商談話會)를 조직하여 매주 영사관에서 모여 경쟁의 방법을 서로 논하고 득실의 폐단을 연구하며 외국무역 관련 내용을 선택, 번역하여 비교함으로써 표준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에 화교상인의 심리(心理)가 문득 크게 열리고 단체(團體)의 힘이 더욱 견고해져 상업이 이로 인하

46) 駐新義州領事館, 「駐新義州領事館管內僑民狀態」, 『南京國民政府外交部公報』第8卷 第4號, 1935.4.

여 점차 펼쳐질 수 있었다.

넷째, 농공(農工) 각계가 편안하게 본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소작인과 노동자가 지주와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는 상황에 주목하여, 토지 임대 혹은 용공(傭工)으로 생활할 경우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이전의 병폐가 없어졌다. 다섯째, 국가의 명예를 꽃피우고 외정(外情)을 감흡(感洽)하게 하였다. 지역(일본) 상업회의소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상정(商情)이 막혀있다고 생각하여, 상업회의소의 유력자를 화교에 소개하여 교류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금융이 원활해지고 거소(居所)가 자유로워졌다. 도로 수리, 가로등 수축 비용을 화교가 조달하고 위생, 공익 등의 제비용에 힘을 보탬으로서 외국인이 화교를 칭찬하여 ‘도덕상인(道德商人)’이라고 하였다. 이에 화교의 신분이 고결해졌는데, 이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로 마영발의 은연중 지도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다.

여섯째, 관할 지역의 교민 간 연락을 원활히 하고 통합하는데 노력하였다. 매년 각지 교민의 정황을 친절하게 물어보아 교섭 안건이 있으면 대신 주관하고, 외도(外道) 교민의 안부를 중화회관에 물어보아 중화회관이 지역 교민을 통속하도록 했다. 혜산진(惠山鎭) 등지의 교민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유민(游民)의 왕래가 잦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영사가 도입한 다음 해 중화公所(中華公所, 이후의 중화상회)를 설치하고 동사(董事)를 공거(公擧)하도록 함으로써 교민이 모두 마영발의 은혜에 감복하였다.⁴⁷⁾ 위의 내용은 원산화교의 네트워크의 정점에 원산부영사관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원산중화회관의 바람대로 마영발은 유입되었다.

그러나 원산부영사관은 1927년 철폐 논란의 와중에 놓이게 되었다. 중화민국외교부는 1927년 5월 경비 부족을 이유로, 업무가 번거롭지 않고 화교수가 많지 않은 진남포, 원산부영사관의 업무를 정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원산중화상회는 외교부, 경성총영사관에 철폐 명령을

47) 『駐朝鮮使館檔』 03-47-006-01, 「使館人事案」(1913年), 67~74쪽.

변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10월 외교부는 원산부영사관의 업무 정지를 철회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상황에서 진남포부영사관은 경성총영사관 휘하의 판사처(辦事處)로 개조된 반면, 원산부영사관은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그 연유는 원산부영사관과 관내 중화상회와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사관 인사를 살펴보면, 원산부영사관 인원은 다른 영사관과 비교하여 거의 인사이동이 없었다. 원산부영사 마영발, 수습영사 양우(楊佑)는 청(淸) 1909년(宣統 元年)부터 부영사관에 근무하여 존폐 논란이 계속되었던 1927년까지 현직에 있었다.

원산중화상회 역시 부영사관 인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산중화회관은 1913년 마영발의 업적을 일일이 열거하며 그의 유임을 호소하였다. 1927년 외교부가 경비 부족을 이유로 부영사관의 정지를 명하자, 원산중화상회는 외교부, 총영사관에 업무 정지를 보류해달라고 호소하면서 부영사관의 공비(公費)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적극적인 제안을 하였다.⁴⁸⁾ 이처럼 원산화교 네트워크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부영사관은 중화상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관할 구역이 러시아, 중국과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군사적 중요성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2. 화교조직

원산중화상회의 전신(前身)은 청 1889년(光緒 15年) 만들어진 중화회관(中華會館)이다. 일본화교의 경우 중화회관은 1873년 요코하마, 1892년 고베에 설립되었고, 조선화교의 경우 1884년 한성, 1887년 인천에 신설

48) 『駐朝鮮使館檔』 03-47-159-02, 「橫濱元山靛南浦領事館裁撤及歸併」(1927年), 2~58쪽. 원산부영사관 철폐 논란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논문 참고. 이은자, 「中華民國 前期(1912~1927) 駐朝鮮 영사관 조직 - 人的 構成의 측면을 중심으로 -」, 『중국근현대사연구』 66, 2015,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3~26쪽.

되었다.⁴⁹⁾ 원산 좌탐위원(坐探委員) 오중현(吳仲賢)의 입안(立案)으로 만들어진 원산중화회관은 초기에 경비 부족을 이유로 잠정적으로 ‘조계(租界) 내 상호(商戶)’를 빌어 관무를 처리하다가, 1904년(光緒 34年) 회관 건물을 신축하여 비로소 회관의 시대가 열렸다.⁵⁰⁾

중화민국정부는 (1912년 8월 10일 이전에 설립된) 중화회관, 중화공소(中華公所), 서보사(書報社) 등에 선거법에 따라 대표 1명을 선출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을 것을 명했다. 이에 원산중화회관은 1912년 12월 동사(董事) 응국치(應國治)를 대표로 선출하였다. 응국치는 절강(浙江) 자계현(慈谿縣) 출신으로 덕태원(德泰源)의 주주(股東)였다. 앞서 서술했듯이 덕태원은 청말부터 원산의 대표적 직물도매상으로 배화폭동 이후에도 유일하게 남은 상호였다. 원산중화회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관무를 처리한 ‘조계 내 상호’는 바로 덕태원의 주주 응국치의 방옥(房屋)이었다. 응국치는 1887년(光緒 15年) 원산에 와서 1889년 처음 만들어진 원산중화회관 동사로 총당되었고 1905년(光緒 31年) 사직하고 귀국하였으나 다음 해 다시 원산에 와서 1908년(光緒 34年) 재차 동사가 되었다. 그는 원산에 거주한 지 이미 20여 년이 넘어 화교 상황을 숙지한 인물이었다.⁵¹⁾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응국치는 본인 소유 원산 (구)조계 내 제9호지(第9號地) 1구(區) 합계 159평과 그 위에 목조 방옥 2개 모두 8칸 및 주방 등 부속시설을 자원해서 부영사관에 매매하여 관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원산부영사관은 1919년 일금(日金) 2천원에 공식적으로 응국치의

49) 이정희·송승석,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 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를 중심으로』, 81쪽.

50) 『駐朝鮮使館檔』 03-47-009-04, 「會館商館不動産登錄」(1913年), 25~26쪽; 『駐朝鮮使館檔』 03-47-075-01, 「元山購買館地」(1919年), 5~6쪽. 원산 좌탐위원 오중현의 재직 기간은 1886년 11월부터 1894년 6월 청일전쟁 직전까지였다. 원세개(袁世凱)는 원산의 상무(商務)가 번창하지 않다는 연유로 상무위원(商務委員)을 폐지하고 한성총리공서(漢城總理公署) 휘하의 좌탐위원을 두었다. 이은자, 「清末 駐韓 商務署 조직과 그 위상」, 『명칭사연구』 30, 명칭사학회, 2008, 388~390쪽.

51) 『駐朝鮮使館檔』 02-35-056-18, 「各口商務情形—商務報告」(二)(馬廷亮, 1912年), 90~91쪽; 99~111쪽.

방옥을 구매하여 영사관 부지(元山府 支那町 26番地)로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에 등기를 신청하였다.⁵²⁾ 이상에서 응국치가 덕태원의 주주이면서 조계 내 부동산을 대규모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중화회관을 이끄는 또 다른 화교상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다음 2건의 자료는 이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앞서 1913년 2월 원산중화회관의 명의로 경성총영사 부사영에게 마영발 부영사의 유임을 호소하는 문서가 남아있음을 언급하였는데, 그 문서의 맨 끝은 다음과 같다.

대서(代書) 응국치(應國治)

연서(連署) 원산(元山) 삼합영(三合永), 홍창영(鴻昌永), 덕흥릉(德興隆), 원순덕(源順德), 공화창(公和昌), 전승복(全昇福), 천화덕(天和德), 서성영(瑞成永), 서성상(瑞成祥), 서성동(瑞成東), 영풍태(永豐泰), 영풍잔(永豐棧), 천화태(天和泰), 영화태(永和泰), 영성태(永盛泰), 성기호(成記號), 천화룡(天和隆), 성기호(盛記號), 화성영(和盛永), 인풍덕(仁豐德), 동흥상(東興祥), 복합흥(復合興), 태창화(泰昌和), 손례급(孫禮及)⁵³⁾

이에 의하면 이 문서의 작성자 대표는 동사 응국치이고 중화회관 회원 24호가 문서에 연서하였다. 응국치가 덕태원의 주주이므로 이를 포함하면 25호였다. 청 1908년(光緒 34年) 원산 상무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이들 상호 중 삼합영, 홍창영, 덕흥릉, 공화창, 천화덕, 서성상, 서성동, 영풍태, 영화태, 성기호 등은 직물도매상, 잡화상 혹은 무역상이었다.⁵⁴⁾ 또한 삼합영, 홍창영, 덕흥릉, 덕태원을 포함하여 천화덕, 영풍태, 영화태, 영성태, 성기호, 천화룡 등 10호는 1923년 조선총독부 조사자료에도 등장하였다(〈표 3〉 참고). 후술할 〈표 5〉에 의하면 중화회관 회원 25호

52) 『駐朝鮮使館檔』 03-47-075-01, 「元山購買館地」(1919年), 5~9쪽.

53) 『駐朝鮮使館檔』 03-47-006-01, 「使館人事案」(1913年), 67~74쪽.

54) 『駐朝鮮使館檔』 02-35-056-03, 「各口商務情形—各口商務情形」(三)(馬廷亮, 1908年), 86~88쪽.

중 약 28% 곧, 삼합영, 홍창영, 덕홍룡, 덕태원, 천화덕, 성기호, 동홍상, 영화태, 화성영 등 9호가 중화상회 직원으로 계승되었다. 이들 9호 경리(經理)의 원적을 살펴보면 산둥 모평(牟平) 출신이 7명, 산둥 복산(福山), 직예(直隸) 창려(昌黎) 출신이 각 1명이었다.

두 번째로, 조선총독부의 요구에 따라 원산중화회관은 1913년 7월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중화회관장정을 제출하였다. 설립허가신청서 맨 뒤에 신청인의 이름과 날인이 있는데 순서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응국치(應國治), 절강 자계현(浙江 慈谿縣), 함경남도 원산중국조계(咸鏡南道 元山中國租界)

양죽삼(楊竹三), 산둥 영해현(山東 寧海縣), 함경남도 원산중국조계(咸鏡南道 元山中國租界)

왕서빈(王序賓), 산둥 복산현(山東 福山縣), 함경남도 원산중국조계(咸鏡南道 元山中國租界)

손덕현(孫德軒), 산둥 영해현(山東 寧海縣), 함경남도 원산중국조계(咸鏡南道 元山中國租界)

용귀흥(龍貴興), 직예 창려현(直隸 昌黎縣), 원산항 원산리(元山港 元山里)

왕서택(王書澤), 산둥 영해현(山東 寧海縣), 함경남도 함흥(咸鏡南道 咸興)

기본당(紀本堂), 산둥 봉래현(山東 蓬萊縣), 함경북도 성진항(咸鏡北道 城津港)⁵⁵⁾

위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7명이다. 후술할 장정의 규정에 의하면 동사 1명, 의원(議員) 6명이므로 응국치가 동사, 나머지 6명은 의원이다. 이 중 산둥 출신은 5명이고 절강, 직예 출신이 각각 1명이며, 원산 거주자 5명 외에 함흥과 성진 거주자도 각각 1명이 포함되었다. 이 중 양죽삼은 덕홍룡 경리이고,⁵⁶⁾ 후술할 <표 5>에 의하면 용귀흥은 천화덕 경리

55) 『駐朝鮮使館檔』 03-47-009-04, 「會館商館不動産登錄」(1913年), 27~29쪽.

였다. 산동 출신 5명 중 영해 3명, 복산과 봉래(蓬萊) 각각 1명으로 중화회관 동사와 의원 중에는 원산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평(牟平) 출신이 없지만, 앞의 회원에서 원적이 확인 가능한 9호 중 덕흥룡 경리 양죽삼과 천화덕 경리 용귀흥을 제외하고 모평이 6명, 복산이 1명이었다(〈표 5〉 참고). 이상 응국치를 포함한 7명을 중심으로 덕태원을 포함한 25호가 중화회관을 이끌어가는 화교상인 그룹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자료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부분은 설립허가신청서에 중화회관 장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1889년 음력 5월 13일 장정에 의거하여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소재 중화민국 상공(商工) 등의 연락, 상정(商情)과 기타 상공 등 일반의 번영을 계획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산중화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사무를 취급하였고, 회원의 회비에 의거하여 유지되며, 조직과 기능의 지속성을 위해 중화회관을 사단법인으로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서 중화회관 장정이 1889년 설립 당시만 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한성, 인천의 경우에도 중화회관 장정이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원산중화회관의 장정은 중화회관의 기능,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다소 길기는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⁵⁷⁾

원산중화회관장정

제1장 정명(定名)

제1조. 본 회관은 조선 함경 양도(兩道)와 강원도에 거주하는 화인총회(華人總會)로 이름은 중화회관이고 원산에 설립되었다.

제2장宗旨(宗旨)

제2조. 본 회관은 상정(商情)을 연락하고 상지(商智)를 열어 통하게 하

56) 「商工資産信用錄」 1915年; 1918年(李正熙,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附表 533~540쪽).

57) 『駐朝鮮使館檔』 03-47-009-04, 「會館商館不動産登錄」(1913年), 30~43쪽.

는 것을 방침으로 삼는다.

제3조. 상공업의 진보를 강구하고 상공업 상의 분쟁 조정을 종지(宗旨)로 삼는다.

제4조. 상업을 고찰하여 상학(商學)을 연구하고 균중과 토론하여 발달을 도모한다.

제5조. 본 회관은 특별히 처리해야 할 일을 의정(擬定)하고 표명(標明)하여 제1로 회규(會規)를 정립한다. 각처에 주재하는 화인(華人)과 연락하여 마음과 뜻을 합하여 본국의 상무를 확충하고 공익을 유지한다. 행규(行規)를 개정하여 분란을 조정하여 그 치게 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대신 소송하여 상정을 화목하게 한다.

제3장. 조사

제6조. 하나. 상공업을 어떻게 진흥, 고무해야 하는지를 조사하여 진보를 구한다.

둘. 상공업 상의 법률이 어떻게 시행하기에 편한지, 어떻게 화인 상공업 합당함을 조사하여 장관에게 품문(稟文)을 올려 지역에 따라 마땅함을 구하고 일으켜서 실효를 거두게 한다.

셋. 중국 토질을 연구하여 어떻게 판로 확충을 해야 하는가를 연구한다.

넷. 현지의 공예(工藝)를 조사하여 제조에 편하게 한다.

다섯. 모든 상공업의 이해(득실)를 균중(회원)에게 알려준다.

여섯. 상공업 사항을 위탁하고 상공업의 각 사안을 조사한다.

일곱. 외국무역과 관세 및 중국과 외국이 정한 조약, 상약(商約) 및 행선장정(行船章程)을 조사하여 각 화인의 질문에 응한다.

여덟. 지방의 국금(國禁)과 법률을 조사하여 처음에 이 지역에 온 상인의 물음에 준비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아홉. 외국의 신세칙(新稅則)과 중국의 매년 상무의 성쇠(盛衰)를 조사한다.

열. 공상부(工商部)와 공사 및 개항장의 영사관을 대신하여 사항을 조사한다.

제4장. 명위(名位)

제7조. 본 회관의 영수는 각 회원이 의논하여 정한다

동사 1명/ 의원 6명/ 회원은 정액 없음

제8조. 본 회관 판사(辦事) 인원

서기 1명/ 회계(司帳) 1명/ 조사/ 서무 1명/ 번역 1명

제9조. 본 회관의 구역은 원산영사관 관할 구역으로 한정한다.

제5장. 선거

제10조. 본 회관 선거법

동사는 응당 회원에서 선거하되 반드시 자질과 명망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본 회관에서 동사를 선거할 경우 선거표를 써서 기밀투통법(機密投筒法)으로 표수를 가장 많이 얻은 자가 당선된다. 표수가 동수이면 동수의 이름을 회원이 투표하여 다시 정한다.

자격은 품행이 방정한 자/ 원산에 실업이 있는 자/ 문서(公牘)를 숙지하고 사리가 분명한 자/ 나이 30세 이상자

선거투표식은 다음과 같다(생략)

제12조. 의원 선거 역시 기밀투통법을 이용한다.

의원 자격

품행이 방정한 자. 교민으로 실업이 있는 자/ 문서(公牘)를 숙지하고 사리가 분명한 자/ 나이 30세 이상자

선거 표식은 앞과 동일하다

제13조. 회원

함경 양도와 강원도에 거주하는 화인은 모두 본 회관에 들어올 수 있다. 당 회원은 반드시 부유한 상점의 소개를 받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인가될 수 있다.

품행이 방정한 자/ 확실히 정당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사리가 분명한 자 (제14조~제18조 생략)

제6장. 경비

제19조. 본 회관은 화교를 보호하고 상무를 확장하기 위해 일체의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상계(商界)가 만일 기부금을 내야하면 수시로 의논하여 공익에 따른다.

제20조. 본 회관의 경비는 신상(紳商, 부유한 상인)이 일체를 모집하여 운용한다.

제21조. 만일 특별 의연금이 넘치거나 그 해에 남은 비용이 있으면 수시로 산업(産業)을 매매하거나 공사(公司)의 주식을 살 수 있지만 반드시 군중의 의결을 통한 후에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의사(議事)

제22조. 본 회관이 개최하는 의사는 상회(常會), 특회(特會), 연회(年會), 대회(大會) 4종이 있다

갑. 상회는 매월 15일 1회 개최하여 각 사안을 처리하고 긴요한 일이 있으면 임시로 모집한다.

을. 특회는 1. 본 회관의 경비 및 동산과 부동산을 운용할 때

2. 상무의 대국(大局)과 관련이 있을 때

3. 교섭 사항이 있을 때

4. 화교에게 긴요한 일이 있거나 쟁론이 있을 때

병. 연회는 매년 정월 20일, 7월 20일 2회로 회계를 조사하고 상무 정황을 보고한다.

정. 대회는 3개월마다 1회로 정월, 4월, 7월, 10월 15일에 개최한다. 회의사건은 다음과 같다.

서신 왕래 보고/ 소송 조정 보고/ 미해결 사안 보고/ 새롭게 정한 일 보고/ 상인의 판매 수출입 화물의 보고는 각 상인이 매월 보고/ 회원이 올린 진정서 의논

(제23조~제38조 생략)

제8장. 책임

(제39조~제43조 생략)

제9장 권리

(제44조~제49조 생략)

제10장. 규칙

(제50조~제58조 생략)

부칙 자선(慈善)

- 제59조. 본 회관은 의지(義地)를 두고 화인의 관구를 준비하여 장례에 도움을 주고 사망자의 성명과 관적을 조사, 보고한다.
- 제60조. 구역 내 실업(失業) 화교는 본 회관이 응당 조사하여 직업을 구해주고 방법이 없으면 떠날 때 도움을 주어 실업 화교가 비도가 되는 것을 막는다.
- 제61조. 구역 내 화교 혹은 질환자가 생계가 어려우면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본 회관은 의약비를 보조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
- 제62조. 구역 내 빈곤하여 의지할 데 없는 화인이 사망하면 본 회관은 응당 관목을 준비하여 의지(義地)에 매장하고 성명과 관적을 사망자 가족에게 통보한다.
- 제63조. 구역 내 화인의 방옥 혹은 선박이 재난을 당하면 본 회관은 재난 상황을 조사하여 구조에 도움을 준다.
- 제64조. 내지(內地) 혹은 각지 거주 화인은 만일 천재(天災)가 있으면 기부금을 모아 구제한다.
- 제65조. 일체 의연(義捐) 혹은 공익에 관한 기부금 모집은 본 회관이 의논을 통해 도움을 준다.
- 제66조. 이상 제59조에서 제62조까지는 동사가 조사하여 집행하고 등기한 뒤 개회 시 군중에게 보고한다. 화교는 반드시 본 회관에 와서 등록하고 아울러 영사관이 발급한 적패(籍牌)를 가지고 있어 조사가 가능한 자로 한정한다.
- 제67조. 이상 제63조에서 제65조는 본 회관에서 보고 후 동사가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 후에 집행할 수 있다.

이상 중화회관장정에 의하면 중화회관은 함경남북도와 강원도에 거주하는 화인총회로 상무 진흥, 상인 간의 상호협력, 상공업 분쟁의 조정, 상학 연구, 분쟁 관련 소송 대행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제1장, 제2장). 그와 관련하여 상공업 법률, 상무 조사 등이 주요한 업무였다(제3장). 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동사 1명, 의원 6명을 두고 선거법을 제정하였고(제4장, 제5장), 회관의 운영을 위해 경비 조항을 설정하였다(제6

장). 중화회관이 개최하는 의사의 종류, 책임, 권리, 규칙 등도 제정하였다(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상업적 문제 뿐 아니라 부칙으로 자선 항목을 두어 의지의 관리, 화교 빈민과 실업 유민 구제, 재난 발생 시 기부금 모집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1913년 12월 제정된 것으로 알려진 인천중화상무총회의 장정은 화교상인 간의 협력, 상무 진흥에 중점을 두었고 자선 항목은 없었다.⁵⁸⁾ 이는 청말 설립된 중화회관과 근대 상회(商會)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근대 상회의 설립은 청 1903년(光緒 29年) 11월 공포된 상회간명장정(商會簡明章程)에 의거하는데 이에 의거해 1904년부터 국내에 상회가 만들어지고 해외에는 1909년 고베, 오사카, 요코하마에 상무총회가 설립되었다.⁵⁹⁾ 조선에서는 이보다 늦어 중화민국 초 1913년 1월 경성에서 중화상무총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인천에서는 1914년 1월 성립되었다. 이후 중화민국은 1916년 12월 상회법(商會法)을 재차 공포하여 상무총회를 총상회로 개칭하도록 했다. 이 상회법에 근거하여 경성중화상무총회는 경성중화총상회로 개조되고, 인천상무총회는 인천중화총상회로 명칭이 바뀌었다.⁶⁰⁾

반면 원산부영사 마영발은 1917년 2월 14일자 보고에서, “원산중화회관은 청 1889년(光緒 15年)에 성립하였는데 본년(本年) 원산중화상회로 개조되었다”⁶¹⁾고 하였다. 그렇다면 원산중화회관, 상무총회, 중화상회의 관계는 무엇일까.

청진상무분회(淸津商務分會)

58) 이정희·송승석,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 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를 중심으로』, 86~92쪽.

59) 앞의 책, 93쪽.

60) 『駐朝鮮使館檔』 03-47-045-01, 「各華商會選舉及改組」(1917年), 17쪽; 26~29쪽.

61) 앞의 자료, 16쪽.

성진상무분회(城津商務分會)
원산중화상회(元山中華商會)
원산중화회관(元山中華會館)
웅기상무분회(雄基商務分會)
신갈파상무분회(新架坡商務分會)⁶²⁾

원산부영사관의 철폐 논란이 발생하자 원산중화상회는 1927년 5월 15일자로 외교부에 철폐 보류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위의 자료는 그 문서의 맨 뒤 서명자이다. 이 자료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청진상무분회, 성진상무분회, 웅기상무분회, 신갈파상무분회의 명칭으로 미루어보아 청진, 성진, 웅기, 신갈파에 상무분회가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산에도 중화상무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6년 12월 상회법에 따라 원산은 중화상회로 개칭되었지만, 청진, 성진, 웅기, 신갈파상무분회의 이름도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산중화상회와 원산중화회관의 이름이 병기되어 중화회관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고베의 경우 1909년 고베중화총상회가 만들어지면서 중화회관이 갖고 있는 여러 기능 중 경제적 기능이 분리되어 총상회의 업무가 되었다고 하는데,⁶³⁾ 원산의 경우에도 상업적 기능은 중화상회, 의지(義地)의 관리와 공익자선 사업 등은 중화회관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크며 부영사관 철폐라는 긴요한 문제에는 같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원산중화상회는 선거법에 의거하여 1917년 2월 직원 21명의 명단을 보고하였다.⁶⁴⁾ <표 5>는 당시 원산중화상회가 보고한 직원 21명의 명단이다.

62) 『駐朝鮮使館檔』 03-47-159-02, 「橫濱元山甌南浦領事館裁撤及歸併」(1927年), 10쪽.
63) 中華會館 編, 『落地生根—神戸華僑と神阪中華會館の百年』, 東京: 研文出版, 2013, 20쪽.
64) 『駐朝鮮使館檔』 03-47-045-01, 「各華商會選舉及改組」(1917年), 16쪽; 107쪽; 111~114쪽.

〈표 5〉 원산중화상회 직원 명단(1917년 2월 10일 원산중화상회 작성)⁶⁵⁾

이름	원적	거주지	직업	직위
譚璞	山東 牟平	元山 支那街 21號	三合永 經理	中華商會 會長
楊永遜	山東 牟平	元山 支那街 22號	鴻昌永 經理	中華商會 副會長
楊兆祥	山東 牟平	元山 支那街 24號	德興隆 經理	中華商會 會董
林守芬	山東 牟平	元山 支那街 23號	德泰源 經理	
龍貴興	直隸 昌黎	元山 支那街 31號	天和德 經理	
宇培義	山東 牟平	元山 上洞 206號	成記號 經理	
林克家	山東 牟平	元山 場村街 104號	東興祥 經理	
孫永和	山東 福山	元山 上洞 148號	永和泰 經理	
劉惠卿	山東 牟平	永興郡	志勝號 經理	
王書澧	山東 牟平	北青郡 城內 市場	德泰東 經理	
王克諫	山東 牟平	永興郡	福興和 經理	
韓鳳岐	山東 昌邑	元山 上里洞 35號	永盛泰 經理	
趙連璧	山東 蓬萊	元山 支那街 30號	元興棧 經理	
婁世亭	山東 牟平	鎮興郡	福興德 經理	
林瑤	山東 牟平	元山 上里洞 42號	和盛永 經理	
王克謙	山東 牟平	端川郡	謙順益 經理	
楊召南	山東 牟平	高原郡	寶聚豐 經理	
孫適軒	山東 牟平	淸津郡	同合永 經理	
隋登雲	山東 黃縣	城津郡 旭丁	東生福 經理	
林明基	山東 牟平	雄基郡 16號	和聚永 經理	
常春廷	奉天 承德	新架坡郡	義順盛 經理	

중화상회 직원 21명 중 원산부 거주자는 11명, 영흥군 2명, 북청군, 진흥군, 단천군, 고원군이 각 1명이고, 청진과 성진 및 옹기와 신갈과 거주자가 각각 1명이었다. 원산부 11명의 경우 기존의 중국조계 거주자가 6명이고 상동과 상리동이 각각 2명, 장춘가 1명이었다. 여기서 원산부를 대표하는 화교상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조계 지나가 21호~24호, 30호~31호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산부영사관도 중국조계 내 지나정

65) 앞의 자료, 119~123쪽.

26번지에 자리하였다.⁶⁶⁾ 원적을 살펴보면 2명을 제외하고 19명이 산동성 출신인데 15명이 산동 兪平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원산 화교 상인의 고향은 대부분 모평, 복산으로,⁶⁷⁾ 원산중화상회 직원 역시 모평 출신이 전체의 2/3이었다.

청 1906년(光緒 32年) 원산의 상무 보고에 의하면 원산의 양화(洋貨), 직물상은 7호로 동풍태(同豐泰), 홍창영, 홍창동(鴻昌東), 덕흥릉, 공화창(公和昌), 삼합영, 덕태원이었다. <표 5>에 의하면 이 중 삼합영, 홍창영, 덕태원, 덕흥릉 등 4호가 등장하고 있다. 삼합영의 경리 담박은 중화상회 회장으로 1923년 직물수입상 중 과세표준액이 가장 높았던 인물이다(<표 3> 참고). 홍창영의 경리 양영린은 부회장, 덕태원 경리 임수분과 덕흥릉 경리 양조상은 회동으로 피선되었다. 1906년 피화(皮貨) 취급점 천화덕도 회동에 포함되었다.⁶⁸⁾ 그 외 확인 가능한 것으로 성기호, 영성태는 직물상, 영화태는 포목잡화상, 화성영은 면포상이었다.⁶⁹⁾ 또한 앞의 중화회관 회원 25호 중 약 28% 곧, 삼합영, 홍창영, 덕흥릉, 덕태원, 천화덕, 성기호, 동홍상, 영화태, 화성영 등 9호가 중화상회 직원으로 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산중화상회 직원은 2년 만기 후 1919년 재선을 거쳐,⁷⁰⁾ 1928년에 가서야 제3회 선거를 진행하였다. 중화상회직원 명단은 <표 6>과 같다.⁷¹⁾

66) 『駐朝鮮使館檔』 03-47-075-01, 「元山購買館地」(1919年), 9쪽.

67) 駐元山副領事館, 「朝鮮元山華僑概況」(1), 『汪偽國民政府外交公報』 第14期, 1940. 10.

68) 『駐朝鮮使館檔』 02-35-056-01, 「各口商務情形—各口商務情形」(一)(馬廷亮, 1906年), 48~49쪽.

69) 「商工資産信用錄」, 1918年; 1921年(李正熙,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附表, 536~544쪽).

70) 원산중화상회는 1917년 2월 제1회 직원 선거 이후 1919년 2월 제2회 직원 선거를 진행하였다. 직원명단 21명을 비교해보면, 덕태원 경리가 임수분에서 공경장(孔慶璋)으로 바뀌고, 화성영 경리 임요가 빠진 대신 덕태동의 또 다른 경리 곡정현(曲靜軒)이 선정된 것을 제외하고 변동이 없었다. 『駐朝鮮使館檔』 03-47-070-02, 「商會選舉暨整頓商業意見書及改組」(1919年), 4~9쪽.

71) 원산중화상회의 함문(函文)에 의하면 1919년 제2회 직원 선거에서 다수가 연임하였고 이후 여러 번 선거를 하였지만 회의정족수 부족으로 연장되어 1928년 2

〈표 6〉 원산중화상회 직원 명단(1928년 4월 17일 원산중화상회 작성)⁷²⁾

이름	원적	거주지	직업	직위
宇培養	山東 牟平	元山	成記號 經理	中華商會 會長
婁世堂	山東 牟平	元山	德泰源 經理	中華商會 副會長
孫預川	山東 牟平	元山	德興永 經理	中華商會 會董
王樹田	山東 福山	元山	天和泰 經理	
譚璞	山東 牟平	元山	三合永 經理	
袁蜀文	山東 黃縣	元山	天和德 經理	
李永泰	山東 黃縣	元山	永豐泰 經理	
李敬五	山東 福山	元山	同增成 經理	
邵榮九	直隸 臨榆	元山	天和隆 經理	
于進修	山東 文登	元山	仁合東 經理	
王克謙	山東 牟平	永興	謙順益 經理	
劉惠卿	山東 牟平	永興	志勝號 經理	
牟仙洲	山東 福山	元山	謙泰興 經理	
龍輔宸	直隸 昌黎	元山	成記號 經理	
于培淶	山東 福山	元山	養生德 經理	
韓鳳岐	山東 昌邑	元山	永順號 經理	
婁遵賢	山東 牟平	永興	福興和 經理	
宋壽山	直隸 交河	咸興	福盛東 經理	咸興分會 會董
于耀亭	山東 福山	咸興	永源長 經理	
隋登雲	山東 黃縣	城津	東生福 經理	城津分會 會董
許子沂	山東 牟平	城津	恒昌永 經理	
孔鳳洲	山東 牟平	清津	養生泰 經理	清津分會 會董
王志和	山東 蓬萊	清津	志和商會 經理	
蘇永昌	山東 海陽	雄基	協昌魁 經理	雄基分會 會董
楊海樓	山東 牟平	雄基	同泰祥 經理	

〈표 6〉에 의하면 원산중화상회 직원은 정, 부회장 각 1명, 회동 23명

월에 가서야 제3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駐朝鮮使館檔』 03-47-167-02, 「商會改選董事職員」(1928年), 3~4쪽.

72) 앞의 자료, 6~8쪽.

으로 모두 25명이었다. 재선과 달리 4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내 지역 예컨대 함흥, 성진, 청진, 웅기 등 4곳이 분회를 증설하여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⁷³⁾ 25명 중 원산부 출신은 14명, 영흥은 3명이고, 함흥, 청진, 성진, 웅기는 각 2명이었다. 1917년 원산상회 직원(〈표 5〉)과 비교해보면 1928년의 경우 회장이 삼합영 경리 담박에서 성기호 경리 우배의로, 부회장이 흥창영 경리 양영린에서 덕태원 경리 루세당으로 바뀌었다. 또한 원산의 경우 기존의 삼합영, 덕태원, 성기호, 천화덕 등 4호를 제외하고 10명의 회동이 바뀌었다. 이 중 덕흥영은 1923년 당시 원산화교를 대표하는 4호의 직물도매상 중 하나였고, 그 외, 영풍태, 천화태는 직물상, 의생덕은 면포잡화, 영순호는 곡물상이었다.⁷⁴⁾ 함흥분회의 복성동이 대표적인 주물공장이고 대표자가 직예(하북) 교하 출신임은 앞서 서술하였다.

원적을 살펴보면 산동 출신 22명 중 모평 10명, 복산 5명, 황현 3명이고, 문등, 창읍, 봉래, 해양이 각 1명이었으며, 산동을 제외하고 직예 임유, 창려, 교하가 각 1명씩이었다. 1917년과 마찬가지로 산동 모평 출신이 가장 많고 그 뒤로 복산, 황현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원산화교의 대표자로 앞서 서술했듯이 부영사관 인사, 부영사관 존폐 문제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⁷⁵⁾ 배화폭동 이후 중화상회 직원명단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4호의 직물도매상 중 덕태원만 남고 나머지는 폐쇄되었기 때문에 중화상회 직원도 이에 따라 변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73) 앞의 자료, 3~4쪽.

74) 李正熙,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557~562쪽.

75) 1929년 8월 남경국민정부는 신상회법(新商會法)을 공포하여 위원제(委員制)로 개조하고, 기존의 총상회 명칭을 없애고 화상상회(華商商會)로 개칭하도록 했다. 원산중화상회는 이에 따라 11월 12일 회의를 소집하여 투표를 통해 집행위원 10명, 후보집행위원 2명, 감찰위원 5명, 후보감찰위원 1명을 선정하였다. 이어 집행위원 중 주석은 우배의, 상무집행위원은 루세당·담박·손예천·왕수전 등 4명, 감찰위원 중 상무감찰위원은 용보신으로 삼았다. 『駐朝鮮使館檔』 03-47-178-03, 「商會職員改選」(1929年), 22쪽; 『駐朝鮮使館檔』 03-47-191-04, 「商會改組」(1930年), 4쪽.

VI. 결 론

20세기 전반 조선화교사에서 북부화교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본고는 기존 화교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선 북부화교 그 중에서 중일전쟁 이전 시기 원산화교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고의 의미를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우선, 지역적으로 원산에 주목함으로써 20세기 전반기 조선화교사의 연구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조선 북부 동해안 함경남도에 자리한 원산이 개항된 시점은 1879년으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였다. 원산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군사기지 역할을 하였고, 20세기 초 경원철도를 시작으로 육상과 해상교통이 발달하면서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와 함경북도의 청진 등에 밀려 공업 발전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원산의 도시로서의 특성은 원산화교의 규모와 직업별 구성에도 반영되었다. 원산화교는 청말까지만해도 200명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경원철도의 개통이후 점차 증가하여 1930년에는 1,186명으로 늘어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1931년 배화폭동의 영향으로 거의 3/4이 줄어들었지만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배화폭동 이후 원산화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화교직물도매상이 거의 몰락하고 남은 직물잡화상의 규모 역시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화교상인, 화교노동자와 더불어 조선화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화교농민이 늘어나 1934년 말에는 화교상인과 비슷한 규모가 되었다. 반면 공업도시로서의 위상이 미약하여 화교노동자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두 번째로 『주조선사관당』(駐朝鮮使館檔)에 수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원산화교의 네트워크를 원산부영사관, 원산중화상회를 중심으로 검토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성,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중화상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원산중화회관, 중화상회 관련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원산중화회관의 장정을 통해 그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산중화상회의 전신 중화회관은 청 1889년에 만들어졌다. 중화회관의 동사 응국치는 직물도매상 덕태원의 주주이면서 조계 내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재력가로 중화회관을 설립하고 그 대표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화회관을 이끄는 화교상인 그룹은 동사 1명과 의원 6명을 중심으로 덕태원을 포함한 직물도매상, 잡화상 등 25호였다.

중화민국 시기에 들어와 원산중화회관은 조선총독부의 요구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장정을 제출하였다. 장정에 의하면 중화회관은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거주 화교로 구성되어 상무 진흥, 상인 간의 협력, 상공업 분쟁의 조정, 상학(商學) 연구, 분쟁 관련 소송 대행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와 관련하여 상무 조사 등이 주요 업무였다. 업무 수행을 위해 동사 1명, 의원 6명을 선거로 뽑았고 경비 조항을 설정하였다. 또한 상업적 문제 뿐 아니라 의지(義地)의 관리, 화교 빈민과 실업 유민 구제, 재해 발생 시 기부금 모집 등 자선 항목을 부칙으로 제정하였다.

원산중화회관은 상무총회를 거쳐 1916년 12월 상회법에 따라 중화상회로 개조되었다. 원산중화회관은 상무총회, 중화상회로 개조된 이후에도 존속하여, 상무총회 그 이후 중화상회는 상업적 기능을 전담하고 중화회관은 의지(義地)의 관리와 공익자선 사업 등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17년 중화상회 직원 21명의 이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직물도매상, 잡화상의 경리였고 산동 모평(牟平) 출신이 2/3이상이었다. 또한 중화회관 회원의 약 28%가 중화상회 직원으로 계승되었다. 1928년 선정된 중화상회 직원은 2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관내 함흥, 성진, 청진, 웅기 등 4곳에 중화상회 분회(分會)가 증설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원산화교의 대표자로 부영사관 인사, 부영사관 존폐 문제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해방 이전 조선화교사에서 중요한 계기는 두 가지로 하나는 배화폭동

이고 두 번째는 중일전쟁이다. 원산의 배화폭동을 중심으로 지역민과 화교의 관계, 중일전쟁 기간 원산화교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향후 청진, 신의주 등지 화교 연구가 진행되면 보다 구체적인 비교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 참고문헌

<자료>

臺灣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所藏, 『駐朝鮮使館檔』.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南京國民政府外交部公報』,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0, 影印本.

『汪偽國民政府外交公報』(『南京國民政府外交部公報』附錄)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各年.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朝鮮總督府, 1924.

小田内通敏, 『朝鮮に於ける支那人の經濟的勢力』, 東京: 東洋協會出版部, 1924.

高尾新右衛門 編, 『元山發展史』, 大阪: 啓文社, 1916.

高尾白浦, 『(大陸發展策より見たる) 元山港』, 元山: 東書店, 1922.

元山府, 『日本海の商港 元山』, 元山: 元山府, 1926.

元山商工會議所, 『元山商工會議所六十年史』, 元山: 元山商工會議所, 1942.

中村進吾, 『朝鮮鐵道四十年略史』上, 京城: 共盛堂印刷所, 1940.

仁川府, 『仁川府史』, 仁川府, 1933.

<연구논저>

김지환, 「간도협약과 일본의 吉會鐵道 부설」, 『중국사연구』 34, 중국사학회, 2005.

김희신, 「淸末(1882~1894년) 한성 華商組織과 그 위상」, 『중국근현대사연구』 46, 중국근현대사학회, 2010.

송규진,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사학연구』 110, 한국사학회, 2013.

-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 변화과정 연구』, 일지사, 1982.
- 왕언메이 저, 송승석 역, 『동아시아현대사 속의 한국화교 - 냉전체제와 조국 의식』, 학고방, 2013.
- 이옥련, 「연변 지역의 귀국화교사회와 북한화교사회의 상관관계 및 역사성」, 『한국학연구』 30, 인하대한국학연구소, 2013.
- 이은자, 「清末 주한 商務署 조직과 그 위상」, 『명청사연구』 30, 명청사학회, 2008.
- _____, 「中華民國 前期(1912~1927) 駐朝鮮 영사관 조직 - 人的 構成의 측면을 중심으로 -」, 『중국근현대사연구』 66, 2015.
- 이은자·오미일, 「1920~1930년대 국경도시 신의주의 華工과 사회적 공간」, 『사충』 79, 고려대역사연구소, 2013.
- 이정희·송승석,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 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학고방, 2015.
- 짜르치즈스키 표도르(이휘성), 「북한화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 석사학위논문, 2014.
- 李正熙,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12.
- 中華會館 編, 『落地生根—神戸華僑と神阪中華會館の百年』, 東京: 研文出版, 2013.
- 楊昭全·孫玉梅,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公司, 1991.
- 曲曉範·劉樹眞, 「當代朝鮮華僑的歸國定居及其安置史略」, 『華僑華人歷史研究』 2000年 第4期, 中國華僑華人歷史研究所, 2000.

A Study on the Overseas Chinese in Wonsan before the Sino-Japanese War (1912~1936)

Lee, Eun-Sang*

This paper has examined the discussions on the overseas Chinese in the northern region of the colonial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with much focus on those in Wonsan before the Sino-Japanese War (1912~1936). First, this study reviewed the status of port opening in Wonsan. Second, it discussed the scale and the occupational status of the overseas Chinese in Wonsan. Especially, it focused on the situation of the overseas Chinese before and after the anti-Chinese riots of 1931. Third, it analyzed the network of the overseas Chinese in Wonsan with regard to its relationship with the Wonsan vice consulate and the Chinese Chamber of Commerce in Wonsan. In addition, this study described the Chinese Association, the predecessor organization of the Chinese Chamber of Commerce in Wonsan.

Key words: Overseas Chinese in Wonsan, Wonsan vice consulate, Chinese Association, Chinese Chamber of Commerce in Wonsan, anti-Chinese riots of 1931

* Professor, PNU

필자 E-Mail: eunha@pusan.ac.kr

투고일: 2015년 12월 1일 / 심사완료일: 2016년 1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6년 1월 28일